

효천

1학년

테마독서 "색깔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<색깔비가 내리는 나라>

이동태 / 꿈터

조그만 나라 하늘에 떠 있는 작은 구름은 바람을 타고 떠다니며, 사르르 사르르 색깔비를 부려 줬어요. 여름이 되면 녹색비를 부려 풀과 나무가 쑥쑥 자라게 했고, 가을이 되면 주황비를 부려 단풍과 과일 향기가 넘치게 했어요. 작은 구름은 또 어떤 색깔비를 내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?



<빨강이 나무에서 노래해요>

조이스 시드먼 / 살림어린이



사계절은 저마다의 개성과 아름다운 색깔을 품고 있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계절의 색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봄에는 분홍색, 여름에는 초록색, 가을에는 주황색, 겨울에는 흰색이 떠오르나요? 사계절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더 다양한 색깔이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가꿔주고 있어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는 또 어떤 색깔이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줄까요?

효천

1학년

테마독서 "색깔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<무지개 만나러 가자> 노루궁둥이 창작교실 / 노루궁둥이

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흩어졌어요. 금방 비가 그치고 나니 빨주노초파남보 예쁜 무지개가 떠올랐어요. 무지개를 만나기 위해 연호는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. 하지만 자전거로는 빨리 달릴 수 없었죠. 연호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무지개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과연 연호는 무지개를 만날 수 있을까요?



<파랑이와 노랑이> 레오 리오니 / 물구나무



파랑이와 노랑이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예요. 파랑이는 앞집에 사는 노랑이와 놀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녔어요. 길모퉁이를 돈 순간 노랑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. 너무 기쁜 파랑이와 노랑이는 서로를 안아 반갑게 맞이했죠. 그 순간 파랑이와 노랑이는 초록색이 되어 버렸어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

효천

1학년

테마독서 "색깔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<초록 커튼을 심자> 루리코 / 시금치

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어요. 강렬하고 뜨거운 햇빛과 더위를 초록 커튼이 막아줄 수 있대요. 초록 커튼은 벽에 넝쿨을 뽐으며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덩굴 식물을 말해요. 창문 밖으로 펼쳐진 커튼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초록 커튼을 만들어볼까요?



"책이란

넓디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이다."

- 프랜시스 베이컨 -